美 "北 미사일 격추 가능하다"

국방부 관리 "北 발사 대비 3차례 요격 실험"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상정, 이미 3차례의 요격실험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략군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미사일 방어체계(MD)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알래스카에서 응전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차례 (요격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 같은 3번의 실험을 통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또 미국이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동시에 상공에 쏘아올리게 되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격실험은 가상의 적이 발사한 미사일 1기에 5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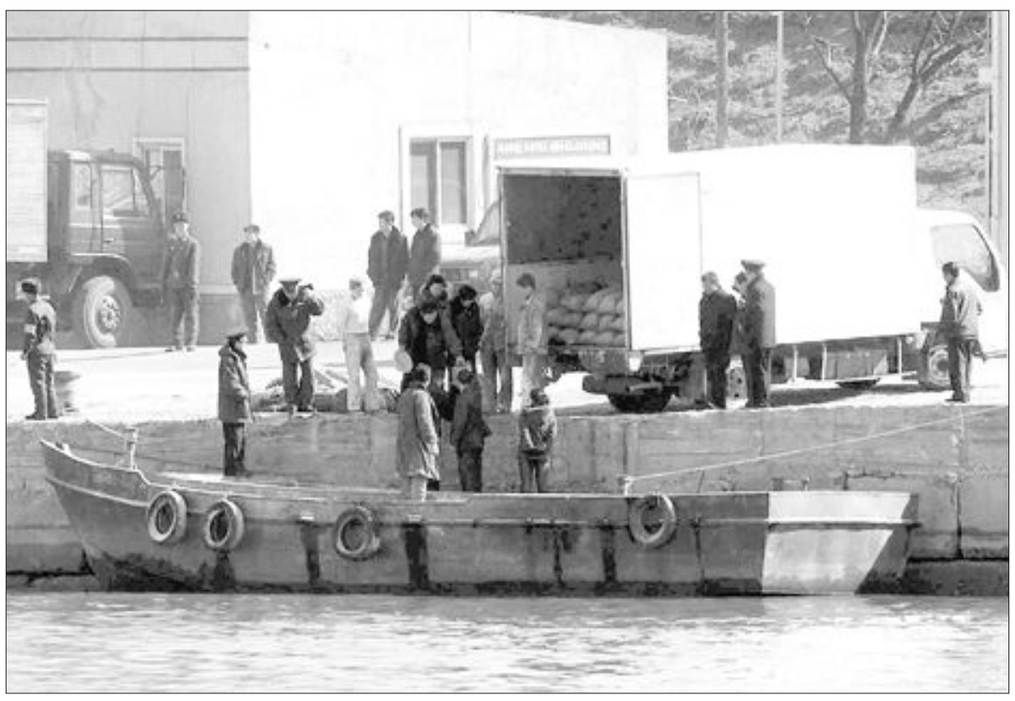
반면 찰스 맥키어리 국방부 작전실험평가국장은 서면자료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와 같은 장거리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대상으로 한 '지상발사형 중간단계 방어(GMD)' 요격실험에서는 '제한된 능력'만을 보여줬다며 MD체계를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매키어리 국장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해상 이지스함(이지스 BMD)과 최종단계 고고도 전역방어(THAAD)의 요격실험에선 목표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데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 일부 분야에선 MD체계가 성공단계에 들어섰음을 내비쳤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필립 코일 전 국방부 작전실험평가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부풀려진게 아니냐는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이 테러단체에 비밀리에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북한 내 과격세력에 의해 실수든 아니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일 전 국장은 "북한이 자살행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허용하는 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모종의 수단은 필요하다"며 미사일 방어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국서 바라본 북한 마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26일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마을은 한가롭기만 하다. /연합뉴스

북극쪽은 中·러, 남극쪽은 韓·日 위협

■北 미사일 어느 방향으로 쏠까

북한이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2호'를 우주공간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되는 운반로켓 '은하2호'의 발사 방향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공위성을 띄울 때는 운반로켓이 주변국의 영해와 영공을 진입하느냐 여부를 따져 발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국의 영공과 영해 진입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반도는 중심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북쪽 90도 방향과 남쪽 90도 방향으로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는 26일 "한반도의 중심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남쪽, 북쪽 90도 방향으로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이 각도가 나중에 위성이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극방향으로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으로 진입하게 되고 남극 방향으로 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영해와 영공 통과가 불가피하다.

다량의 액체연료와 고체연료가 담긴 운반로켓이 자칫 실패해 주변국으로 떨어지면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국가들은 운반로켓의 방향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한 전문가는 "위성의 발사 방향은 기준궤도와 발사장의 위치, 발사체 성능 등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특히 주변국의 영해와 영공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고흥군 외나로도로 위성발사장을 결정한 것은 발사체가 공해상으로 날아감으로써 자칫 실패했을 때 주변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입지조건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여전히 北 통치"

美 CIA 국장 밝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취임한 파네타 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은 최근 계속 제기돼 왔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북한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佛, 1월 실업자 9만명↑ '사상 최고'

지난 1월 한 달간 프랑스에서 9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전에는 볼 수 없던 기록적인 것으로 전체 구직자 수만 200만명을 넘는다.

프랑스 고용청(ANPE)에 따르면 공식 구직 사이트(Pole emploi)에 2009년 1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실업자는 9만200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12월에 비해 4.3% 늘어난 수치이며 2008년 1월에 비해서는 15.4%나 증가했다. 총 구직자 수는 220만4천명에 이른다.

지난달 실업자 수 9만200명 중에 남성의 증가율이 5.5%로 여성(2.9%)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5.1%), 25~49세(4.1%), 50세 이상(3.9%) 순으로 실업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지난달 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전달(2008년 12월)에 비해 15.4%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2008년 1월)에 비해 무려 29.3% 감소했다.

이와 관련, 클로드 게앙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영 뉴스전문 채널 LCI와 인터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프랑스)가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으며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는 정부와 노동계, 사측에 이들(실업자)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는 21만5천명의 실업자가 생겨나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증가율(10.2%)을 보였으며, 2009년에도 28만2천명의 실업자가 더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파리=정상필 특파원 camus@